

BTS 그라미상 받나... 아시안 팝 부문 신설

가요계, 그라미 靑 관심 긍정적
주류 부문 장벽 높아질까 우려
'아시아 언어 의미 사용' 규정
K팝 영예보다 한국어 늘어날까



지난 2022년 그라미 어워즈에 참석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라미상이 K팝을 아우르는 새로운 상을 신설하면서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 K팝 가수들의 첫 수상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인다.

미국 ABC방송은 16일(현지시간) 그라미 어워즈가 내년도 시상식에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베스트 라틴 송', '베스트 트래디셔널 팝 보컬 퍼포먼스', '베스트 R&B 컬래버레이션 또는 듀오·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트래디셔널 포크 앨범' 등 5개 부문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이다. 이 부문은 K팝과 J팝(일본 팝음악), C팝(중국 팝음악)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아시안 국가 언어를 의미하게 사용하고, 아시아 출신이거나 현지에서 인정받는 아시안 팝 음악의 탁월함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라미 측은 아시안 팝이 글로벌 음악 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이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로제 등 K팝 가수들은 그라미 수상

에 도전해 왔지만, 반번이 고배를 마셨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버터'(Butter)와 로제의 '아파트'(APT.) 등은 미국 시장에서 유의미한 흥행에 성공했음에도 수상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 '골든'이 K팝 장르로는 처음으로 그라미 어워즈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아시안 팝을 겨냥한 수상 부문이 새로 생기면서 방탄소년단 등 K팝 가수들의 수상도 한층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대중문화 시상식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는 매체 골드더버는 "그라미가 (부분이) 확대되면서 방탄소

년단과 (컨트리송 가수) 엘라 핑글리에게 좋은 소식이 됐다"고 전했다. 기존 수상 규정도 손질했다.

신인상에 해당하는 '베스트 뉴 아티스트' 상의 경우 후보로 오를 수 있는 최대 횟수가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어났으며, 앨범의 신규 녹음 비율은 기존 75%에서 66%로 낮아졌다. 이 같은 새 규정이 적용되는 제69회 그라미상 시상식은 내년 2월 7일 열릴 예정이다.

가요계는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 신설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주류 부문 '장벽'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드러냈다.

한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그라미가 K팝 등 아시아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

라면서도 "그라미가 신설 부문을 주류 부문보다 하위로 생각하고, K팝은 이 부문만 가져가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무척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라미는 회원 투표로 결정되는 시상식이어서 각 회사의 전략이 중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K팝을 위시한 아시아 음악의 영향력이 북미에서 계속 커지고, J팝과 C팝도 챙기려니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모수를 둔 것 같다"며 "다만 별 공통점이 없는 아시아 국가의 음악을 하나로 뭉뚱그린 점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 영화제에서 서구를 아울러 '앵글로 색슨 영화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우선 내년도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그라미의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이 '하나 이상의 아시아 언어를 의미있게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인기 K팝 가수들의 한국어 가사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국 빌보드 진입을 고려해 곡 전체를 영어 가사로 하는 팀들이 꽤 있었다"며 "그런데 새 부문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제 그라미를 의식해 반대로 한국어 가사를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허영만 화백 주석회사 허영만 제공

허영만 작가, 건강 이상으로 입원

'백반기행' 활동 중단
치료와 회복에 전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만화가 허영만(79)이 건강 이상으로 대외 활동을 중단한다.

주석회사 허영만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허영만 화백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 현재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병원에 입원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며 "당분간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TV조선에서 방영 중인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역시 제작진과 협의를 통해 시즌1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지난 7년간 프로그램과 함께 만들어진 제작진과 출연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이와 관련해 TV조선은 "곧 여든을 맞는 허 화백의 건강상의 이유로 여정을 일단락 짓게 됐다"며 "시청자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7년간의 감동과 맛의 여정을 총망라한 '스페셜 편'을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오후 7시50분 방송되는 스페셜 방송에선 그동안 '백반기행'에 출연한 365명의 초대 손님과 허 화백의 담화, 허 화백이 발로 뛰어 만난 전국 팔도 2131개 밥상을 되돌아볼 예정이다.

1947년(호적상 1949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난 허 화백은 1974년 '집을 찾아서'로 한국일보 신인만화 공모전에 당선돼 만화계에 데뷔했다.

최우식·문가영 로맨스 시대극
tvN '고래별' 내년 방송

허남준은 강의현의 동료인 독립운동가 송해수, 유재명이 강의현의 친일파 아버지 강근형 역을 맡았다.

배우 최우식과 문가영이 시대극으로 만난다.

tvN은 이들이 주연하는 드라마 '고래별'을 2027년 방송한다고 17일 밝혔다. '고래별'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1926년 경성에서 친일파 집안의 하녀가 바다에 빠진 독립운동가를 구하면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최우식이 친일파 아버지를 둔 독립운동가 강의현을, 문가영이 선하고 야무진 심성의 하녀 허수아를 연기한다.

이외에도 강하나, 김여진 등이 나온다. 공승연도 특별 출연한다.

극본은 모두·설순 작가가, 연출은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의 허진호 감독과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 '스터디그룹'의 유범상 감독이 맡았다.

원작 웹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재됐으며, 연재 후 꾸준히 평점 9.9를 기록하며 네이버웹툰 로맨스 장르에서 별점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2020년 12월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선정한 '2020 올해의 우리 만화'로 선정됐다.

'참교육' 끊이지 않는 글로벌 돌풍

공교육 현장의 민낯을 조명한 '참교육'이 공개 2주 차에도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영어 쇼로 꼽혔다.

17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서 집계한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참교육' 시청수(Views·시청 시간을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는 2110만으로 비영어 쇼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일 공개돼 3일 만에 비영

어 쇼 부문 1위로 직행한 '참교육'은 2주 연속 정상을 지켰다.

국가별로는 한국, 일본, 태국, 튀르키예, 브라질 등 46개국에서 1위에 올랐고 91개국에서 톱 10에 들었다.

시청수는 비영어 쇼 2위인 '멋진 신세계'의 270만과 비교해 약 8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주 시청수 640만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약 230% 증가했다.

배우 김무열이 주연한 '참교육'

은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가상 기관인 '교권보호국'이 선을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교육 현실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렸다.

실제 사건·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교육 현장의 문제를 초법적인 방식으로 강력하게 응징하는 판타지적 스토리,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배우들의 연기, '사이드' 액션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참교육'과 함께 비영어 쇼 부문에선 '멋진 신세계'가 2위, '원더풀'이 8위를 차지하며 한국 콘텐츠 총 3편이 톱 10에 올랐다.



참교육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 KBS1 | KBS2 | MBC | JIBS/SBS | EBS1 |
|--|--|--|---|--|
|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제주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사랑의 가족(재) | 4: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L조 잉글랜드·크로아티아 7: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L조 가나·과나바 10: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K조 우즈베키스탄·콜롬비아 |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 8:50 첫 번째 남자(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찾아가는 꾸러미교실 11:15 건강의 재구성 썰북(재) |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팝 8:50 종문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꾸러미 탐구생활 11:00 말하는 몸 | 8:50 꼬마법사 주니토니 9:20 처음 배우는 AI 11:05 세계테마기행 13:25 EBS 평생학교 15:50 마사와 곰 16:4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7:10 페퍼 피그 18:50 PD코리 21:55 왔다 내 손주 |
|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킹 특선 헤드라인 컴퍼니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9 14:10 방과 후 초능력 14:4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5:10 백투더뮤직 시즌 2(재) 16:00 사사간건 17:00 KBS 뉴스5 17:30 탐나는 제주 | 13:2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스페셜 15:00 KBS 월드컵 뉴스 15:15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 12:00 12 MBC 뉴스 12:25 오늘N 13:25 뽀뽀보 동아출마 스페셜 13:55 2시 뉴스 워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 12:00 SBS 12 뉴스 12:45 배미편 시즌4 13:00 건강한국(재) 14:00 뉴스리뷰 15:30 워이드 정보소 알고보면 16:00 테마스페셜(재)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여행에 진심 | KCTV 9:00 KCTV 9시 뉴스 9:30 우리동네 히어로 시즌1 10: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1:00 KCTV 11시 뉴스 11:30 슈퍼푸드와 힘 A 12:30 토크TV매트 13:30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15:30 황금나침반 16:00 삼촌 명심합서에 17:20 지금 이순간 20:00 도래불 |
|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밤상 20:30 일일연속극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다류 인사이드 22:50 KBS 뉴스리인W 23:30 이슈 픽들과 함께 스페셜 | 18:35 2TV 생생정보 19:05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20:30 북중미 월드컵 NOW 22:00 신상출시 편스토랑 23:30 갈리치의 월드컵 전술집 | 18:05 테마기행 길 19: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9:10 첫 번째 남자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시사기획 이슈 있다 22:00 구해줘! 홈즈 스페셜 23:50 놀러코스터 미리보기 | 18:10 2026 프로야구 LG·KIA 21:30 SBS 8 뉴스 21:55 JIBS 8 뉴스 22:20 코리아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3:50 나이트라인 | 제주CBS FM 93.3MHz 90.3MHz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여행기요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복지환의 뉴스쇼 530 18:00 박재홍의 한민승부 20:00 CBS 뉴스 |
|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오늘의 운세 | 18일 |
|--------|---|
| | 36년 추진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 중요 계약이나 만남은 내일로 연기하라. 48년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자제하며 사생활을 논하지 마라. 60년 타이밍이 맞으면 호재. 신중함이 필요. 72년 강한 의욕과 독단적 추진은 오히려 해가 된다. 84년 긴 생각 끝에 악수를 두는 격. 신속하고 적극성이 필요할 때. |
| | 42년 새로운 것을 좋아하던 구설 또는 불화가 생기니 이성교제는 신중. 54년 투기는 반갑반홍. 신중함 필요하고 내기는 불리. 66년 한 박자 늦은 여유를 갖고 심호흡으로 스트레스 해소. 78년 잔뜩 또는 소심으로 귀가 고민이 많다. 90년 형제제 또는 친구에 대한 회소가 있다. |
| | 37년 사소한 의견충돌이 다툼이 될 수 있다. 먼저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 49년 반가운 손님이 방문하거나 형제간 단합이 있다. 61년 갈 곳이 생기거나 친지나 동료의 손님을 맞이한다. 73년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이익이 생긴다. 계약건은 시간 활용이 중요. 85년 미래에 대해 고민.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 |
| | 38년 사사로움 감정이나 오히려 언쟁하니 주의하면 해소된다. 50년 자식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하는 업무에 성과가 있다. 62년 문제가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 길. 74년 항상 성실한 마음을 주위에서 인정해준다. 내일에 전념하라. 86년 전문직 종사자는 이익이 따르고 직장인은 인정받는다. |
| | 39년 자식 때문에 자금지출이 발생된다. 51년 부하직원의 배탈사건이나 생산기계의 고장으로 필요 자금이 소모. 63년 금전적인 문제로 시바나 다툼이 오거나 금전거래는 보류. 75년 매매나 문서를 주고 받을 일이 찾아온다. 87년 의욕, 자신감이 저하되고 새로운 변화를 원함. |
| | 40년 마음을 달래줄 벗이 필요하고 부탁을 받을 일이 생긴다. 52년 집안일로 외출 또는 여행을 한다. 구입물품이나 자금 분실 조심. 64년 답답할 땐 슬픔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76년 맞지 않는 허위정보에 귀를 기울이면 손실만 초래하니 호기심 자제하라. 88년 새로운 방향이나 방법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
| | 41년 상대자와 언쟁이나 다툼은 피할 것. 자랑하는 일은 불리. 53년 매매, 이사, 가계오픈 등에서 기쁨이 오니 기회를 활용할 것. 65년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여유가 필요하다. 77년 낙엽을 피하는 조심성이 필요할 때. 의견 대립은 피하라. 89년 이성관계 불협화음. 손재수 조심. |
| | 42년 새로운 것을 좋아하던 구설 또는 불화가 생기니 이성교제는 신중. 54년 투기는 반갑반홍. 신중함 필요하고 내기는 불리. 66년 한 박자 늦은 여유를 갖고 심호흡으로 스트레스 해소. 78년 잔뜩 또는 소심으로 귀가 고민이 많다. 90년 형제제 또는 친구에 대한 회소가 있다. |
| | 43년 주변환경 탓을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꾸준히 하라. 55년 재물의 지출이 따르니 구매 충동은 삼가고 조그 귀가. 67년 급히 서두를 일이 생긴다. 소송건에서는 불리. 79년 상대를 신뢰하면 그만큼 나도 신뢰를 받을 수 있으니 청정에 인색하지 마라. 91년 다양한 생각으로 고민이 많다. 선악이 생긴다. |
| | 44년 마음의 문을 열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유지하라. 56년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이익이 생긴다. 계약건은 시간 활용이 중요하다. 68년 많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상대를 칭찬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 80년 이성운이 오고 소계가 이루어지니 웃음을 써야 한다. 92년 재물지출이 많다. 안전사고 조심. |
| | 45년 동료간 협력 협조할 일이 생기고 기쁨이 두배가 되는 즐거움이 있다. 57년 친목 또는 모임이 생긴다. 귀가는 늦지 말 것. 음주는 자제. 69년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려면 빠른 전문자격 취득도 필요하다. 81년 직장인은 기쁨이 학생은 행사에 참여한다. 93년 투기나 도박에서 불리하니 관심 갖지 마라. |
| | 46년 매매, 교환, 이동 등 문서 변화가 온다. 좋은 일이 생긴다. 58년 외모변화를 주고자 하며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며 멋을 낸다. 70년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하니 대중 속에 나를 알리는 것도 지혜이다. 82년 이성문제로 갈등. 충동심이 강하게 나를 자극하기도 한다. 94년 친구의 도움으로 기쁨이 있다. |
| | 47년 문서운은 길하나 세밀한 검토는 필수. 육석 가리는 지혜 필요. 59년 과욕을 부리면 후회. 바쁘게 활동하라. 71년 직장문제로 힘들어진다. 남편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83년 작은 일로 마음이 상치기 되니 조급함을 떨쳐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95년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라. |